

한국광고주협회는 KAA강좌를 개설, 광고관련 핫이슈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12월 강좌에서는 올 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슈퍼스타K2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코카콜라의 김희영 이사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코카콜라만의 마케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공을 부르는 IMC + CrossMedia 실전전략

코카콜라가 정의한 IMC란 무엇일까? 김희영 이사는 타겟 소비자들에게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와 할 수 있는 핵심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CCI)'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브랜드 경험을 하게함으로써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만의 유니크한 모델을 통해 CCI를 중심으로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2010년 큰 반향을 일으킨 슈퍼스타K2에 효율적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비법으로 프로그램 기획 초반부터 일정 부분의 위험부담을 안고 파트너십으로 투자한 것이 주효했으며, 프로그램의 성공과 함께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채널 혹은 프로그램 하나에 광고를 집행할 경우, 성공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 구축이나 스토리라인 강화 등의 보완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영 이사가 공개한 코카콜라만의 성공비법은 유니크한 파트너 시스템, 견고한 IMC 시스템 구축, 브랜드빌딩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자산,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추구, 트레이드 마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고 밝혔다. 또한 코카콜라가 최근 집행한 강남역의 미디어폴이나 비타민워터만의 마케팅 전략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강좌에서는 성공적인 IMC와 크로스미디어의 실전전략은 각 브랜드만의 유니크한 부분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성공률을 높이고, 반드시 계획에서만 멈추지 말고 실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강조했다.  이순임 si0024@kaa.or.kr



KAA news

제6차 편집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9일 롯데호텔에서 제6차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훈 인하대 교수,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배윤상 SIX건설 실장, 윤학노 현대자동차 부장, 임성빈 LG전자 부장, 임희석 대림산업 팀장, 조용우 삼성 부장, 최동원 SK텔레콤 차장 등이 참석해 지난해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신임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윤학노 현대차 부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홍보위원회 송년모임



지난 12월 14일 여의도에서 홍보위원회(위원장 김봉경 현대기아차 부사장) 송년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중앙일보 박의준 경제에디터

와 고현곤 산업부장이 자리를 함께 해 중앙일보의 경제, 산업뉴스의 특징에 대해 홍보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선일보 초청 회원간담회 개최



지난 12월 2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조선일보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조선일보 간부진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일보의 매체력 및 편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1년 제1차 이사회

오는 2월 9일(수)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에서 2011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심의하고 2011년 광고주협회의 사업 방향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1년 정기총회

오는 3월 3일(목) 11시 30분 프라자호텔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2011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